

① 구강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 전문위원장 회의 개최



대통령 직속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혁위)가 상설화될 전망에 따라 구강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도 상설기구로 개편된다.

구강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광식·이하 구보위)는 지난 3월 5일 제5차 전문위원장회의에서 구보위 상설화안을 이사회 안건으로 올리는 한편 상설기구로서의 구보위 운영규정 등에 대해서는 장계봉 법제사사가 검토기로 결정했다. 김 위원장은 “국무총리산하의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에 대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된 구보위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상설화시키고 한시적인 구보위 업무의 종결을 위해 사퇴”할 뜻을 밝히고 오는 4월경 구보위가 상설기구로 재편될 것임을 설명했다.

앞으로 상설화되는 구보위는 여론수렴, 협회 정책에 대한 총괄조정 및 의개혁위에 대한 정책반영의 기능을 하게 된다.

① 서로존중하기 캠페인 제4차 회의 성료

지난 3월 12일 치과계 4개 단체의 관련 이사진이 모인 서로존중하기 캠페인 4차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서로존중하기 4차 회의에서는 4개 단체의 향후 추진 계획의 건에 대한 논의를 통해 우선 4개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행사에 대해 협의하고 이에 따른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또한 치어의 날 행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행사당일 로고 및 표어시상식의 건, 외부인사 초청의 건, 캠페인 결의문 건 등이 거론됐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차후 모임을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김지학 치협 공보이사는 서로존중하기 캠페인에 대한 일부 여론의 우려에 대해 “서로존중하기 캠페인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사업”이라고 지적하고 “너무 서둘러서 각 단체회원들에게 부담을 준다면 오히려 반발심만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① 김영환의원 과기부장관 발탁, 치의 출신 첫 장관 탄생

치과 의사 출신 장관이 처음으로 탄생했다.

치과 의사로 국회에 진출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여온 새천년민주당 김영환 대변인이 지난 3월 26일의 정부개각에서 과학기술부장관에 임명됨에 따라 치과계 역사상 처음으로 장관을 맡게되는 큰 경사를 맞았다.

신임 김 장관은 지난 3월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3월 27일 오전에는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장관의 총책을 시작했다. 장관은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무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① 한국구강보건의료연구원 정기이사회 개최

한국구강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현·이하 구보연)이 법인화한지 1년을 맞아 감사를 통해 그동안의 사업을 점검하고 올해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정했다.

구보연은 지난 3월 28일 프러자호텔에서 정기이사회를 열고 창립기념 심포지엄 및 국민구강보건실태조사를 구보연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으로 평가하고 2001년도 예산 1억2천6백여만원을 확정했다.

구보연은 현재 추진중인 치과기자재의 규격기준 제정 및 통일화 방안에 관한 연구과제와 앞으로 추진예정인 치과의료인력 수급 및 전문치의제와 관련된 연구과제를 승인했다.